

조 명기(백석대)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4Q26은 1972년 밀리크(J. T. Milik)에 의해 학계에 공개된 이후, 기독교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4Q246이 가진 정체성의 탐구, 특히 다니엘서 7장과의 연계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리고 콤파신학과의 관계성을 논할 것이다.

4Q246과 다니엘 7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 명기 | 백석대

1. 들어가는 말¹⁾

4Q246을 성서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는 1972년 밀리크(J. T. Milik)이다.²⁾ 4Q246이 성서학계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 이유는 4Q246에 등장하는 **ל א ד ב**(브레 디 엘/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

1) 지금까지 연구된 묵시, 묵시운동, 묵시문학, 그리고 다니엘, 쿨란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 창선, “쿨란 에센파와 묵시문학,” 『신약논단』 제11권 4호(2004년 12월), 871-893쪽; 이 형의, “유대 묵시문학에 이방인 심판 구원,” 『기독교사상』 제330호(1986년 6월), 106-119쪽; 왕 대일, “묵시문학 다니엘서에 수록된 상징 이해,” 『신학과세계』 제45호(2002년 가을), 5-22쪽; 왕 대일, “묵시문학 운동의 역사이해-말세의식과 종말의식,” 『기독교사상』 제386호(1991년 2월), 37-50쪽; 왕 대일, “인자 같은 이(단 7: 13): 구약신학적 모색,” 『신학과세계』 제48호(2003. 겨울), 116-132쪽; 왕 대일, 『묵시문학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왕 대일, 『묵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은 깊이 있는 연구 분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책 417-425쪽에서 왕대일 교수는 비록 쿨란 공동체가 묵시문학이라 불릴만한 문학적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충분히 묵시적 사상과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 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쿨란 공동체의 삶이 묵시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하였으며 그들이 처한 시대 상황이 묵시가 기록될 만한 종말론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J. T. Milik, *The Books of Enoch, Aramaic Fragments of Qumran Cave 4*, (Oxford: Clarendon, 1976), 213-216쪽.

어와 **בַּר עֲלִיּוֹן**(바르 엘온/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는 흥미로운 용어 때문이다. 특히 이 용어가 구약성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אֲנֹכִי בַר אֱלֹהִים**/바르 엘나쉬)³⁾나 지극히 높으신 이(**אֱלֹהִים**/엘온),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υἱος Θεου**)⁴⁾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υἱος ὑψίστου**)⁵⁾이라는 용어들과 서로 어떤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그 동안 학자들에게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4Q246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이해 및 접근 방법 등은 많이 시도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4Q246을 다니엘 외경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콤란 메시아 문헌 중 하나로 읽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그러한 문학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충분한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일 4Q246이 다니엘 외경이라면 다니엘서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읽혀져야 할 것이며, 콤란 메시아 본문이라면 분명 콤란적 메시아 본문의 연장선에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4Q246이 다니엘 외경이라면 다니엘서와의 역사적 문학적 연관성은 무엇이며, 콤란이 4Q246을 필사한 이유와 방법, 즉 페쇄르적 필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필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콤란의 신학적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논고의 논의 범위를 구약에서 중간기 문헌으로 이어지는 전승사적인 측면이나 누가복음과의 연관성보다는 아람어로 된 묵시 문헌인 4Q246 본문과 동일한 아람어 묵시 문헌인 단 7장과의 관계론적 측면에 둘 것이다. 4Q246을 중심으로 다니엘 7장을 문학적이면서 역사적으로 보충 첨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나 4Q246은 분명 훼손이 많이 된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본문이다. 따라서 저작 연대보다는 필사 연대를 중심으로 원본의 의미보다는 주어진 본문에 대한 콤란 필사적 사본으로서의 의미, 주어진 두 개의 칼럼을 통한 본문 분석, 그리고 본문 복원보다는 주어진 본문에

3) 단 7: 13.

4) 눅 1: 35.

5) 눅 1: 32.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한 신학적·문학적 분석을 시도하되, 단 7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루며, 4Q246의 정체성을 단 7장과의 연관성에서 분석하되 4Q246이 쿨란 안에서 가진 기능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4Q246 본문

우리가 분석해야 할 4Q246은 그 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쿨란 문서 중 하나로서,⁶⁾ 최근 들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⁷⁾ 외형적으로는 아람어로 기록된 묵시 문헌인 4Q246은 가족으로 만들어진 단편 위에 기록되어 있으며, 두 장 이상을 연결하여 기록된 문서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앞뒤에 복수의 칼럼들이 더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개의 칼럼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⁸⁾ 연대기적으로 4Q246은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으로 예를 들면, **𐤏**을 생략한 **𐤏𐤏**⁹⁾이나 **𐤏**을 그대로 사용한 **𐤏𐤏**¹⁰⁾, 그리고 모음문자 (Matres Lectionis)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본문에 사용된 필체를 분석해 보면, 초기 헤로디

6) 밀리크(J. T. Millik)가 1958년 칸도라는 고문서 판매상에게 구입하여 1972년 12월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처음 소개한 4Q246 본문을 피츠마이어(J. A. Fitzmyer)가 두 번에 걸쳐 책으로 소개하였다. J. A. Fitzmyer, "The Contribution of Qumran Aramaic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TS* 20 (1972-74), 382-407쪽; J. A. Fitzmyer, "A Wandering Aramean. Collected Aramaic Essays," *SBL Monograph Series 25*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85-107쪽.

7) D. Flusser, "The Hubris of the Antichrist in a Fragment from Qumran," *Immanuel* 10 (1980), 31-37쪽; F. G. Martínez, "The eschatological figure of 4Q246,"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STDJ 9), (Leiden: E. J. Brill, 1992), 162-179쪽; G. Kuhn, "Röm 1, 3f und der davidische Messias als Gottessohn in den Qumrantexten," Ch. Burchard-G. Thiessen (eds.), *Lese-Zeichen für Annelies Findreiß zum 65. Geburtstag am 15. März 1984*, (Heidelberg: Carl Winter, 1984), 103-113쪽.

8) E. Puech, "Fragment d'une apocalypse en araméen (4Q246=pseudo-Dan) et le 'Royaume de Dieu'," *RB* 99 (1992), 98-131쪽; E. Puech, "Une apocalypse messianique (4Q521)," *RQ* 15/60 (1992), 475-522쪽; E. Puech, "Fragments d'un apocryphe de Lévi et le personnage eschatologique. 4QTestLévia-de et 4QAJ," J. Trebolle-Barrera/L. Vegas Montaner (ed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STDJ 11), (Leiden: E. J. Brill, 1992), 449-501쪽; G. Vermes, "The Oxford Forum for Qumran Research: Seminar on the Rule of War from Cave 4 (4Q285)," *Journal of Jewish Studies*(JJS) 43 (1992), 85-94쪽.

9) 4Q246 Col. 1: 4.

10) 4Q246 Col. 2: 8.

안 시대의 필체로 볼 수 있다.¹¹⁾ 그렇다면 4Q246은 BCE 1세기 초에서 중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4Q246의 저작 시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물론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4Q246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많은 내적, 외적 증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작 연대와 필사 연대를 구분해서 논하면, 4Q246의 필사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원전 1세기경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본의 저작 시기는 쿨란의 필사 시기와 달리 이른 어느 시기, 즉 종말론적이며 혹독한 지배 경험의 전승을 바탕으로 한 묵시적 환경 가운데에서 거하던 세대의 작품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4Q246 첫 번째 칼럼 2번째 줄의 교정의 흔적을 보더라도 4Q246은 쿨란의 저작물보다는 쿨란에 의해서 필사된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쿨란 공동체가 필사하여 교정한 것으로 보이는 4Q246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행간에 원 모양의 독특한 표시 혹은 글자가 등장하는데, 이 원 모양에 대해서 푸에쉬(E. Puech)는 이 모양을 히브리어로 읽을 것을 제안하며 **לעלמא**를 **מלמלמ**로 읽을 것을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מ**아래에 그려져 있는 원 모양을 필기체 **מ**으로 보고 **ל**를 **מ**으로 교체하여 읽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푸에쉬의 이러한 독법은 보편성을 얻을 수 없는 독법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Q246을 비롯한 쿨란 여러 문서들에서 **מ**을 원에 가까운 필기체 형식으로 필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능이 불분명한 4Q246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줄에 등장하는 독특한 형태의 원 모양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이며,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도 특이한 등장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מ**앞에 흐릿하게나마 **ל**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구문은 푸에쉬의 제안보다는 콜린스의 제안인 **לעלמא**(**ל**)¹⁴⁾나 아이젠만과 와이즈의 제안대로 **לעלמא**¹⁵⁾

11) E. Puech, "Fragment d'une apocalypse en araméen (4Q246=pseudo-Dan) et le 'Royaume de Dieu'," *Revue Biblique* 99 (1992), 105쪽.

12) 4Q246 Col. 1: 6.

13) E. Puech, *위글*(1992), 98-131쪽.

14) J. J. Collins, "The Son of God Text from Qumran," M. C. De Boer (ed.), *From Jesus to*

로 읽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독법으로 볼 수 있으며, 본문의 행간에 등장하는 독특한 형태의 원 모양 표식은 4절에 등장하는 해석학적 여백과 함께 쿵란의 페체르적 필사 표식 중 하나로서, 그 기능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4Q246 원문을 쿵란적 신학으로 읽으려 한 여러 시도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4Q246이 쿵란 이전에 기록된 문서이며, 쿵란에 의해서 다시 필사되어 압축된 문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Q246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문학적으로 4Q246은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두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헌이다. 그런데 4Q246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관계, 즉 경쟁 관계나 아니면 협력 관계나 하는 문학적 관점에 따라 본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악의 존재로 읽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로 읽느냐에 따라 4Q246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컬럼 1

1 [...] 그[에]게 임하자, 그는 보좌 앞에 엎드렸다 2 [...] [왕]이여. 오랫동안 당신은 분노하였으며 당신의 날들¹⁶⁾ 3 [...] ... 당신의 환상,¹⁷⁾ 그리고 영원히 다가올 모든 것. 4 [...] 강력한 자들의 압제가 이 땅에 올 것이다 5 [...]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¹⁸⁾ 거대한 학살이 6 [...] 앞서

John: Essays on Jesus and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Honour of Marinus de Jonge (JSTNSup 84), (Sheffield: JSOT Press, 1993), 65-82쪽.

- 15) R. Eisenman/M. Wise, "The Son of God (4Q246)," *The Dead Sea Scrolls Uncovered*, (Shaftesbury, Dorset: Element, 1992), 68-71쪽.
- 16) G. Vermes, *The Dead Sea Scroll in English*, (London, New York: Penguin Books Ltd., 1995), 331-332쪽; F. G. Martinez/E.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 Study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 493쪽. 이 구문도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읽고 있는데, 푸에쉬, 아이젠만, 와이즈는 ךְ שְׁנֵיךְ 로 읽고 있는 반면, 콜린스는 가능성이 희박한 ךְ שְׁנֵיךְ 로 읽고 있으며, 독법에 있어서도 버메쉬 교수는 "당신의 날들"로 읽고 있는 반면, 마르티네즈는 "당신을 바꾸셨으며"로 읽어주고 있다.
- 17) J. J. Collins, *윳글*(1993), 65-82쪽; G. Vermes, *윳글*(1995), 332쪽. 콜린스와 버메쉬는 ךְ שְׁנֵיךְ א ... [...]를 "당신의 환상"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א 앞에 희미하게 작게 남아있는 단어를 כ (피츠마이어나 ך (푸에쉬)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 18) Robert Eisenman/Michael Wise, "The Son of God (4Q246)," *The Dead Sea Scrolls*

리아의 왕[과 에]집트 7 [...] 그리고 그는 이 땅위에 높아질 것이다 8 [...]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섬길 것이다 9 [...] 위] 대하다 그는 일컬어질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칼럼 II

1.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¹⁹⁾ 2. 환상 속에서의²⁰⁾ {섬광처럼}²¹⁾ 그들의 나라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수 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3 이 땅을,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을 것이며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짓밟을 것이다. 4 [여백]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²²⁾ 모든 사람들을 그 칼에서부터 구속할 때까지 [여백] 5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길은 진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심[관할] 것이다 6 진리로 이 땅을, 그리고 모든

Uncovered, (Shaftesbury, Dorset: Element, 1992), 68-71쪽. “여러 지역에서”를 의미하는데, 이 구문을 푸에쉬, 피츠마이어, 콜린스 모두 **נְתַחַם בְּכָל מְקוֹמָא**로 읽어주고 있으나 첫 번째 전치사 **בְּ**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쿡(E. M. Cook)은 **לְ**로 읽어주고 있고 아이젠만과 와이즈는 아예 읽어주고 있지 않다.

- 19) Geza Vermes, *유태교*(1995), 332쪽. 베메쉬 교수는 이 구절을 두 가지 방법,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와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로 읽어주고 있다. 이러한 베메쉬 교수의 독법은 앞 첫 번째 칼럼 9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그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뿐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을 그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로 읽어주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독법은 베메쉬 교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אֱלֹהִים בְּרַחֲמֵי**, 브레 디 엘)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בְּרַחֲמֵי הַיְיָ**, 바르 엘온)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4Q246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를 역사적 인물보다는 종말에 나타날 어떤 약한 왕이라는 측면에서 읽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20) J. A. Fitzmyer, “4Q246: The Son of God Document from Qumran,” *Biblica* 74 (1993), 153-174쪽. “너희가 본” 이 구문을 콜린스, 아이젠만, 와이즈는 모두 **וַיִּתְּנוּ**로 읽어주고 있으나 푸에쉬와 피츠마이어는 **וַיִּתְּנוּ**로 읽으려 하는데, 이러한 독법은 **וַי**와 **וַי**의 혼용법에 기초한 독법으로 볼 수 있으나 문법적으로나 쿰란 필사적 특징으로 볼 때에 적절치 못한 독법으로 볼 수 있다.
- 21) J. A. Fitzmyer, *The Dead Sea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0), 45쪽; Geza Vermes, *유태교*(1995), 332쪽. 피츠마이어는 **וַיִּתְּנוּ** 구문을 문맥상 “환상 속에서”로 읽어줌으로서 “환상 속에서의 섬광처럼”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마르티네즈는 “네가 본 섬광처럼”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법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독법으로 볼 수 있다. 베메쉬(G. Vermes) 역시 이 구문을 “환상 속에서의 섬광처럼”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2) É Puech, *Qumran Grotte 4. XXII: Textes araméens, première partie: 4Q529-549* (DJD XXXI), (Oxford: Clarendon, 2001), 239-244쪽. 여기서 푸에쉬는 이 구문을 사역형으로 읽으며 3인칭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וַיִּקְוּ**)”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어나게 하실(**וַיִּקְוּ**)”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법은 4Q246 히브리어의 **וַי**와 **וַי**의 혼용법에 근거를 두고 시도한 독법으로, 문맥상 부드럽지 못하다. 더욱이 신명엘(**וַיִּקְ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 뒤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것들은 평화로울 것이다. 검은 이 땅에서 멈출 것이고, 7 모든 지역은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며, 8 그분은 그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민족들을 그의 손에 놓고 9 그들 모두를 그의 앞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심연들²³⁾

3. 4Q246 본문 분석

문학적인 측면에서 두 칼럼 중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은 첫 번째 칼럼은 전체적으로 한 예언자가 영원한 보좌 앞에 앉은 이에게 엎드려 대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4Q246의 화자는 첫 번째 칼럼 1-3절에서 환상을 받고, 4절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절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존재가 가져올 대 재앙이 두 번째 칼럼 1-3절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²⁴⁾ 그런데 이 대 재앙이 4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극적인 대 전환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종말론적인 전쟁에서 모든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며 영원한 통치를 이루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문맥상 전반부 악의 존재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진 한 인물인데, 그는 이 땅 위에 위대한 자가 되며, 모든 자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출현이 심한 박해를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다가올 엄청난 악의 주체이며 그 악을 드러내거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4Q246을 읽는다면, 긍정적인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에 의해서 전쟁은 종식될 것이며, 그가 세울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로울 것이며, 모든 도시들은 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적들을 그에게 종속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²⁵⁾

23) J. A. Fitzmyer, *룻골*(2000), 44-45쪽. 여기서 피츠마이어는 소실된 10절을 복원하면서 “땅의 그 어떤 심연도 그것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다”로 읽어주고 있다.

24) 4Q246 Col. 2: 1.

반면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야로 읽는 긍정적인 관점은 4Q246의 '와 의 혼용에 기초하여 "일어나다"(קִי)라는 구문과 "구속하다"(יִי)라는 구문을 사역형으로 읽는 독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4Q246을 읽은 학자가 푸에쉬인데, 그는 두 번째 칼럼 4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로 읽으며,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실 때까지"로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²⁶⁾ 이러한 독법은 문법적 해석에 문학적인 해석을 결합한 해석으로 두 번째 칼럼 4절이 4Q246의 첫 번째 칼럼에서부터 지속되는 무시무시한 위협의 절정이라고 보는 문학적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4Q246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신학적 강조점을 두고자 한 독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야로서 종말론적 구원의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인 평화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⁷⁾ 더욱이 이러한 해석은 두 번째 칼럼 5절의 마지막 구절 "그는 심[관할] 것이다"(יִי/야딘)라는 구문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며, 두 번째 칼럼 마지막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측면으로 무한 확대되면서 4Q246의 신학적 흐름이 종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푸에쉬는 두 번째 칼럼 4절 시작 부분에 4Q246 필사자가 장치한 해석학적 여백은 첫 번째 칼럼에서 묘사되었던 모든 위협과 공포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학적인 전환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4Q246 전체 본문에 새로운 종말론적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4Q246에 등장하여 이 본문을 이끌어 가는 작중 화자는 종말론적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3인칭에게 "하나님의 아들"(בְּרֵהּ יְיָ אֱלֹהִים/브레 디 엘)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בְּרֵהּ עֲלִיּוֹן/바르 엘온)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그"를 높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⁸⁾ 4Q2346 본문에서 이

25) D. Flusser, *윗글*(1980), 31-37쪽; F. García Martínez, *윗글*(1992), 162-179쪽; G. Kuhn, *윗글*(1984), 103-113쪽.

26) E. Puech, *윗글*(2001), 239-244쪽.

27) E. Puech, "Fragment d'une apocalypse en araméen (4Q246=pseudo-Dan) et le 'Royaume de Dieu,'" *Revue Biblique* 99 (1992), 116-117쪽.

해석학적 여백은 유독 두 번째 칼럼 4절 도입 부분과 끝 부분에서만 관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칼럼 4절이 4Q246 전체에서 해석학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4절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해석학적 여백 이후에 이어지는 구문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접미사 사용에 대한 문법적 필요성을 제거하고 해석학적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푸에쉬는 이 해석학적 여백 이후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푸에쉬의 독법을 따라가다 보면 4Q246은 종말론적인 해방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불린 메시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서라 볼 수 있다.

푸에쉬의 이러한 4Q246에 대한 메시야적 해석은 밀리크의 역사적인 해석 방법과는 매우 다른 해석 방법이자 관점으로, 이러한 푸에쉬의 관점은 다음의 비판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와· 혼용에 근거한 독법에 문법적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4Q246 필사자가 배치한 해석학적 장치를 하나님의 백성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의 관점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푸에쉬의 관점은 4Q246의 종말론적 해방자를 지나치게 다윗 가계에 선 왕적 존재로만 읽으려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4Q246에 나온 인물을 일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야를 넘어선 신격화된 메시야로서 11Q13의 멜기세덱이나 천상의 존재로서 인자의 높이에서 4Q246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물론 4Q246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콤란에서 말하는 메시야와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4Q246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자로서 메시야가 콤란 메시야의 특징의 연장선에서 있으며, 제 4 에스드라서의 메시야나 에녹의 비유서에서 등장하는 선재적 존재로서의 인자 개념처럼 동등한 높임을 받기에 충분

28) 4Q246 필사자는 7b(아드, 까지)앞에 해석학적 여백을 배치함으로써 1-3절과 4절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따라 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4Q246에 해석학적 다양성을 주고 있다.

29) E. Puech, *위글*(1992), 129쪽.

한가 하는 부분이다. 만일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콤란에서 등장하는 메시아와 동등한 신학적 대우를 받기 원한다면, 4Q246은 콤란의 다른 평행 본문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1Q13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초인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는데,³⁰⁾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학적 여지는 4Q246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적으로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악한 왕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Q246 두 번째 칼럼 네 번째 구절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문맥 상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학적 여백 역시 두 등장 인물간의 갈등 해소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칼럼밖에 남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문학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의 부정적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4Q246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문학적으로 묵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콤란에서 발굴된 문헌들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다룬 문헌들로는 창세기 주석서인 4Q252와 4Q254, 제 4동굴에서 발굴된 공동체 규칙서(1QS)의 이본들인 4QS(4Q255-264), 전쟁의 책이라 불리는 4Q285, 에노스 기도서인 4Q369, 메시아 묵시록 4Q521, 노아의 탄생과 관련된 문헌인 4Q534, 레위의 외경인 4Q541, 암람의 환상을 다룬 4Q543-549, 멜기세덱 사본인 11Q13 등이 있다. 외형적으로 콤란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서들 속에서 4Q246을 논한다면, 이 문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30) 11Q13 Col. 2: 18에서는 영적 메시아(מָלְאָךְ מְשִׁיחַ, 마쉬아흐 하루아흐)를 언급하며 메시아의 천상적 특징을 부분적으로나마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메시아를 언급하기 보다는 종말론적 예언자에 대한 메시아적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Col. 2: 5, 8, 9, 13, 25절에서 이미 천상적 특징을 가진 종말론적인 구원자로서 멜기세덱과 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문헌들은 신학적으로는 쿵란에 의해서, 쿵란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저한 쿵란적 신학의 산물이라는 배경을 가진 논문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4Q246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메시아 본문이라 볼 수 있다. 학자들 역시 4Q246의 메시아적 본문 읽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였는데, 쿤(H. W. Kuhn)³¹⁾이나 크로스(F. M. Cross)³²⁾ 같은 학자는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을 쿵란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마르티네즈(G. Martinez)는 쿵란에 존재하는 다른 메시아적 본문들과의 평행적 연구를 통해서 4Q246은 11QMelch(11Q13)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나 천사 미카엘, 혹은 빛의 존재와 같은 천상적 메시아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³³⁾ 콜린스(J. J. Collins)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읽고 있는 반면, 피츠마이어(J. Fitzmyer)는 이 인물을 메시아적 연계성을 벗어나 순수하게 구약의 전승사적인 측면에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 중 어느 한 왕족에게 붙이는 수식 여부가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였다.³⁴⁾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학자들로 푸에쉬(E. Puech), 페브리(H. J. Fabry), 바이어(K. Beyer), 스테거만(H. Stegemann), 스투델(A. Steudel), 쿡(E. M. Cook) 같은 학자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악의 화신이라 지칭되었던 안티오쿠스 IV세 에피파네스로 보고 있다. 반면, 밀리크(J. T. Milik)같은 학자는 이 인물을 자신을 테오파토르(Θεοπατωρ)로 지칭한 알렉산더 발라스(Alexander Balas)로 보고 있다.³⁵⁾ 반면 버메쉬(G. Vermes)는 이러한 왕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국의 날에 등장할 악한 왕이라는 측면에서 보려하기도 했고,³⁶⁾ 플러쎄(D. Flusser)는 적그리스도나 벨리알의 모습을 찾아

31) H. W. Kuhn, *유태교*(1984), 103-113쪽.

32) F. M. Cross, "Notes on the Doctrine of the Two Messiahs at Qumran and the Extracanonical Daniel Apocalypse (4Q246)," *Current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E. J. Brill, 1996), 1-13쪽.

33) F. Garcia Martinez, *유태교*(1992), 162-179쪽.

34) J. A. Fitzmyer, *유태교*(2000), 41-118쪽.

35) J. A. Fitzmyer, *유태교*(1972-1974), 391-394쪽.

36) G. Vermes, "Qumran Forum Miscellanea I," *JJS* 43 (1992), 299-305쪽.

보려고 하기도 하였다.³⁷⁾ 물론 모두 가능성이 있는 언급들이다. 그러나 4Q246에 나타난 한 신비스러운 인물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 있는 추측들은 대부분 메시아적 관점이나 외부의 역사적인 관점을 4Q246에 투영시키려는 노력일 뿐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4Q246 스스로 자신을 해석하게 하도록 여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4. 다니엘서 7장과 4Q246

그렇다면 4Q246 본문이 문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Q246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 논의에서 행엘(M. Hengel)과 콜린스는 중요한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즉 4Q246을 용어나 연대기적으로, 혹은 정황 상으로 다니엘서와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행엘은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사상을 통해서 4Q246이 집단적 메시아 사상을 말하고 있다는 해석학적 연결을 시도하였으며,³⁸⁾ 콜린스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사상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4Q246을 통해서 사상적 합일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읽고 주고 있다.³⁹⁾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행엘의 주장대로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⁴⁰⁾ 이러한 다니엘서와의 유사한 표현의 연장선에서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한 집단적 의미로 읽을 수는 없다.⁴¹⁾ 왜냐하

37) D. Flusser, *Judaism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8), 207-213쪽.

38) J. H. Charlesworth, "Christological Titles in Early Christianity," *The Messiah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25-448쪽.

39) J. J. Collins, "The Son of Man in First-Century Judaism," *NTS* 38 (1992) 448-466쪽. 특히 콜린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물을 어떻게 메시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측면을 강조하며, 4Q246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라는 연장선에서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

40) M. Hengel, "Christological Titles in Early Christianity," J. H. Charlesworth (ed.), *The Mess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25-448쪽. 다니엘 3: 10, 5: 7; 6: 13뿐 아니라 에스라 4: 11; 6: 11에서도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1)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AB 29,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6), 84쪽. 다니엘 7장의 인자사상과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비교 접근하여 유사하게 읽으려는 시도는 문학적이며 신학적 논리 비약에 이를 수 있다. 더욱이 요한복음의 인자사상으로 다니엘의 인자사상을 확대하여 직접적 혹은 상관적 관계로 읽으려는 시도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수의 인자사상은 신약 안에서 읽는 것이 보다

면 4Q246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적 존재로서의 특징과 천사와 같은 특징을 가진 존재의 모습을 모두 가진 존재로 그려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개인으로 집중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⁴²⁾ 더욱이 다니엘 7장 13절에 사용된 “바르 에나쉬(בָּר אֱנָשׁ/인자)”나 벤 아담(בֶּן אָדָם/인자)은 구약에서 시나 격식을 차리는 곳에서 에나쉬(אֱנָשׁ/사람)를 높여서 부르는 일종의 어구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 표현이기도 하며,⁴³⁾ 쿰란에서도 이 용어는 4Q246외에 다른 쿰란 문서, 즉 창세기 외경인 1Q20에도 등장하는데,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⁴⁴⁾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의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의미상 보다 깊은 연결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문법적 분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4Q246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존재이자 큰 재앙을 동반하는 인물로서, 4Q246에 사용된 3인칭 대명사의 접미형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4Q246 두 번째 칼럼 5번째 줄 첫 구문인 “그의 나라(הַמַּלְכָּה/말쿠타)”에 사용된 3인칭 대명사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즉 5절의 말쿠타(הַמַּלְכָּה)에 사용된 3인칭 대명사를 첫 번째 칼럼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칼럼 1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3인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칼럼 4절 이후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사자가 삽입해 놓은 두 번째 칼럼 4절에 등장하는 페체르 해석학적 여백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문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 등장 이후 사용된 모든 3인칭 대명사와 접미사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합리적 접근방법이라 생각된다.

42) 4Q246 Col. 1: 4 - Col. 2: 3.

43) 민 23: 19; 욥 16: 21; 25: 6; 35: 8; 시 8: 5; 80: 18; 146: 3; 사 51: 12; 56: 2; 렘 49: 18, 33; 50: 40; 51: 43; 단 8: 17; 10: 16.

44) J. A. Fitzmyer,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I,” *Biblica et Orientalia* 18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1), 151쪽.

백성이나 하나님 자신에 더 가깝고, 더 잘 어울린다.⁴⁵⁾ 이 3인칭 접미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학적인 난제, 본문 전체에서 두 번째 칼럼 4절의 기능이나 4-9절까지의 통일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대명사, 접미사	하나님을 의미하는 대명사, 접미사
5절	“그의 길”(אֲרַחֲתָהּ) “그가 심판하다”(רִיז)	
7절	“그에게”(לָהּ) “그의 힘”(אֵילָהּ)	
8절	“그를 위하여”(לָהּ) “그의 손에”(בַּרְחָם)	“그”(הוּא) “그가 놓다”(נָתַן)
9절	“그의 앞에”(קִדְמוֹתָ) “그의 나라”(שְׁלֹטָתָהּ)	“그가 던져버리다”(יִרְמָה)

위 도표는 4절 이후 등장하는 3인칭 접미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읽기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읽는 것이 보다 문법적으로 옳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즉 문학적으로 4Q246은 4절부터 새로운 종말의 단계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3인칭은 대부분 이 장면의 주체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읽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장면 전환의 주체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기 전에 문학적 구문을 이끌어 왔던 인물인 것이다. 첫 번째 칼럼 전체를 흐르고 있는 문학적 주제는 악한 왕의 등장 및 재앙이며, 이러한 악한 왕이 두 번째 칼럼의 새로운 장면 전환 이전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히 악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4Q246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악한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국의 승리자의 대결, 악한 존재를 통한 대 재앙과 환난, 종말론적인 전쟁, 종국적인 승리의 영원한 통치 등의 요소로 읽혀질 수 있는 묵시 문학적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푸에쉬 독법의 한계점을 충분히 보

45) 각주 21번과 25번을 참조하라.

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부분을 다니엘서와 비교 분석해 보면, 4Q246은 충분히 묵시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 7장과 4Q246에 등장하는 환상과 해석,⁴⁶⁾ 큰 재앙과 악한 왕의 출현,⁴⁷⁾ 종말론적 전쟁,⁴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⁴⁹⁾ 영원한 승리와 통치⁵⁰⁾ 등의 요소는 충분히 이 두 작품이 함께 묵시 문학적 틀 속에서 읽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두 문서에 사용된 용어나 구문을 비교해 보면, 묵시문학적 범주를 넘어 두 문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문헌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게 해 준다.

구절	다니엘서	4Q246	구절
7:8,11	다른 작은 뿔 ⁵¹⁾	하나님의 아들 ⁵²⁾	2:1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지역은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며, 그 분은 그를 위하여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민족들을 그의 손에 붙여 그들 모두를 그 앞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2:7 - 9a
7: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2:9b
7:22	지극히 높은 자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2:4
7:23b - 25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들은 수 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 땅을,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을 것이며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짓밟을 것이다.	2:2b - 3
7:27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2:5
7:27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모든 지역은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2:7

46) 4Q246 Col. 1: 1-3; 단 7: 1-8 15-28.

47) 4Q246 Col. 1: 4-9; 단 7: 9-14.

48) 4Q246 Col. 2: 1-3; 단 7: 23-25.

49) 4Q246 Col. 2: 4; 단 7: 26.

50) 4Q246 Col. 2: 5-9; 단 7: 14, 27.

51) Louis E. Hartman & Alexander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7),

구체적으로 다니엘 7장은 4Q246과 같이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이다. 바벨론 벨사살 왕 첫해에 일어난 묵시적 환상을 담은 단 7장 자체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두 문헌은 충분한 유사성과 공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단 7장의 작은 빨과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위적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읽을 수는 없으나, 충분히 역사적 신학적 연결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용어의 유사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문학적으로 4Q246 첫 번째 칼럼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악한 존재의 흔적들이 두 번째 칼럼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등장으로 인한 반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악한 존재로 읽게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등장 이후 그의 승리, 하나님의 도움, 종말론적 전쟁에서 승리, 영원한 통치 등을 통한 단 7장과의 구조적 유사성, 문학적 유사성, 구문적 유사성 등이 이 두 문헌의 상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단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기 전에 출현하는 악한 존재로서의 짐승의 작은 빨과 4Q246의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밀리크의 주장을 빌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⁵³⁾ 다니엘에 등장하는 짐승의 작은 빨은 B.C. 167년 12월 6일 성전 모독으로 유대인의 적이 된 안

202-220쪽.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빨이라는 개념은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넷째 짐승의 열 개의 빨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악한존재로 읽는다. 구체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세로 읽는다.

52) J. J. Collins, "The Apocalyptic Vision of the Book of Dani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16*,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144 - 147쪽.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에 대해서 콜린스는 위의 행엘과는 달리 천상적 특징을 가진 개인으로 보고 있다.

53) J. A. Fitzmyer, *룻글*(1972-74), 382-407쪽.

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세를 가리키는 것으로⁵⁴⁾ 4Q246 본문 역시 예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를 반영한 문서로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유대를 핍박한 헬라의 왕들 중 하나이자,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불리기 원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BCE 175-164)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제우스의 화신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신격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유대교의 중요한 여러 제의들을 금지하면서 제우스를 경배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모든 토라를 불살랐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유대와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 사건이 BCE 167년 마카비 혁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때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후 164년에 9살의 어린 나이에 안티오쿠스 유파토르(Antiochus Eupator V)가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162년에 류시아스와 데메트리우스 1세에 의해 살해되어 “그의 왕국은 환상 속의 섬광처럼 사라져 갔다.”⁵⁵⁾ 안티오쿠스 IV세와 V세 치하에서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류시아스(Lysias)는 유다 마카비 혁명에 대한 모든 군사적인 책임을 떠맡아 전쟁에 나가 퇴각하기 전까지 모든 성전의 벽들을 쳐부수며 전쟁과 대학살을 자행하였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았으며,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짓밟는” 악을 행하였다.⁵⁶⁾ 이러한 역사적 경험 아래서 작성된 문헌이 4Q246이며, 다니엘 7장 역시 유사한 문학적,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문학적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악의 등장과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의 구조와 구체적인 여러 유사성들이 다니엘서와 4Q246이라는 문서를 하나의 연

54) 마카비 1서 1:54; 4:52; 마카비 2서 9:28. B.C. 164년 12월 14일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재탈환하고 정화시켜 승리를 거두는데 이로 인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말론적으로 등장할 악한 왕으로 그려지곤 하였는데, 다니엘 7장뿐 아니라 11장 21-45절과 12장에서도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핍박자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마카비 2서 9장 28절에서 그는 신성 모독자로 표현되고 있다.

55) 4Q246 Col 2: 2.

56) 4Q246 Col 2:3; 1 Mac 6: 28-54; 2 Mac 13: 1-2; F. Josephus, *Jewish Antiquities XII*, Louis H. Feldman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Books 18-19*,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1969, 1981), 12: 237-434쪽.

장선 속에서 읽게 해 주고 있으며, 쿵란의 필사자는 4Q246을 통해 다니엘서를 신학적으로 자신의 용어로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쿵란식 페체르 해석학적 장치로 구분된 4절 이후 9절까지의 내용의 구조와 주제들이 대부분 단 7장과 연결되고 있는 점은 4Q246이 다니엘 외경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쿵란의 필사자는 페체르적 해석학적 장치들을 동원하여 쿵란의 방식으로 4Q246을 보다 풍부하게 읽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읽혀진 4Q246은 쿵란 안에서 회람되면서 쿵란의 종파주의적인 종말론적 신학과 선택 신학의 기초 위에서 쿵란을 강화시켜 나아갔고, 이를 통해서 쿵란 공동체는 암울한 시대에 희망과 인내를 보다 깊이 있게 갖게 된 것이다.

7. 참고 문헌

- 김 창선, “쿵란 에센파와 묵시문학,” 「신약논단」 제11권 제4호(2004년 12월), 871-893쪽.
- 왕 대일, “묵시문학 다니엘서에 수록된 상징 이해,” 「신학과세계」 제45호(2002년 가을), 5-22쪽.
- _____, “묵시문학 운동의 역사이해-말세의식과 종말의식,” 「기독교사상」 제386호(1991년 2월), 37-50쪽.
- _____, “인자 같은 이(단 7: 13): 구약신학적 모색,” 「신학과세계」 제48호(2003. 겨울), 116-132쪽.
- _____, 「묵시문학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_____, 「묵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이 형의, “유대 묵시문학에 이방인 심판 구원,” 「기독교사상」 제330호(1986년 6월), 106-119쪽.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AB 29,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6), 84쪽.
- Charlesworth, J. H., “Christological Titles in Early Christianity,” *The Messiah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25-448쪽.
- Collins, J. J., “The Apocalyptic Vision of the Book of Daniel,” *Harvard Semitic Monographs* 16,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144 - 147쪽.
- _____, “The Son of God Text from Qumran,” M. C. De Boer (ed.), *From Jesus to John: Essays on Jesus and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Honour of Marinus de Jonge* (JSTNSup 84), (Sheffield: JSOT Press, 1993), 65-82쪽.
- _____, “The Son of Man in First-Century Judaism,” *New Testament Studies* 38 (1992), 448 - 466쪽.
- Cross, F. M., “Notes on the Doctrine of the Two Messiahs at Qumran and the

- Extracanonical Daniel Apocalypse (4Q246),” *Current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E. J. Brill, 1996), 1-13쪽.
- Eisenman, R./M. Wise, “The Son of God (4Q246),” *The Dead Sea Scrolls Uncovered*, (Shaftesbury, Dorset: Element, 1992), 68-71쪽.
- Fitzmyer, J. A., “4Q246: The Son of God Document from Qumran,” *Biblica* 74 (1993), 153-174쪽.
- _____, “The Contribution of Qumran Aramaic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TS* 20 (1974-75), 382-407쪽.
- _____, “The Genesis Apocryphon of Qumran Cave I,” *Biblica et Orientalia* 18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1), 151쪽.
- _____, “A Wandering Aramean. Collected Aramaic Essays,” *SBL Monograph Series* 25,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85-107쪽.
- _____, *The Dead Sea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
- Flusser, D., *Judaism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8).
- _____, “The Hubris of the Antichrist in a Fragment from Qumran,” *Immanuel* 10 (1980), 31-37쪽.
- Hartman, Louis E./Alexander A. Di Lell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7), 202-220쪽.
- Hengel, M., “ÄChristological Titles in Early Christianity,” J. H. Charlesworth (ed.), *The Mess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25-448쪽.
- Josephus, F., *Jewish Antiquities XII*, Louis H. Feldman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Books 18-19*,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1969, 1981), 12: 237-434쪽.
- Kuhn, G., “Röm 1,3f und der davidische Messias als Gottessohn in den Qumran-texten,” Ch. Burchard/G. Thiessen (eds.), *Lese-Zeichen für Annelies Findreiß zum 65. Geburtstag am 15. März 1984*, (Heidelberg: Carl Winter, 1984), 103-113쪽.
- Martínez, F. G., “The eschatological figure of 4Q246,”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STDJ 9), (Leiden: E. J. Brill, 1992), 162-179쪽.
- Martínez, F. G./Eibert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 Study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0).
- Milik, J. T., *The Books of Enoch, Aramaic Fragments of Qumran Cave 4*, (Oxford: Clarendon, 1976).
- Puech, E., “Fragment d’une apocalypse en araméen (4Q246=pseudo-Dan) et le ‘Royaume de Dieu,’” *RB* 99 (1992), 105쪽.
- _____, “Fragments d’un apocryphe de Lévi et le personnage eschatologique. 4QTestLévia - de et 4QAJ,” J. Trebolle-Barrera/L. Vegas Montaner (eds.), *Studies on the Texts of the Desert of Judah* (STDJ 11), (Leiden: E. J. Brill, 1992), 449-501쪽.

- _____, "Une apocalypse messianique (4Q521)," *RQ* 15/60 (1992), 475-522쪽.
- _____, *Qumran Grotte 4. XXII: Textes araméens, première partie: 4Q529 -549* (DJD XXXI), (Oxford: Clarendon, 2001), 239-244쪽.
- Vermes, G., "Qumran Forum Miscellanea I," *JJS* 43 (1992), 299-305쪽.
- _____, "The Oxford Forum for Qumran Research: Seminar on the Rule of War from Cave 4 (4Q285)," *JJS* 43 (1992), 85-94쪽.
- _____, *The Dead Sea Scroll in English*, (London, New York: Penguin Books Ltd, 1995).

검색어

4Q246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인자

쿰란

투고일: 2008년 5월 15일

심사일: 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5일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4Q246 and Dan. 7

Myung-Ki Cho,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identity of 4Q246, Dael Apocryphon through the literary comparison with Dael 7. and to read the theology of Qumran community transcribed in the scroll, 4Q246. After 4Q246 was presented by J. T. Milik in a lecture given at Harvard University in 1972 and was made known by J. A. Fitzmyer in his study, this scroll has made a big issues for a long time being. The main question of 4Q246(Aramaic Apocalypse) is the identity of the designated "Son of God." We can have two views of that, a positive figure or a negative figure.

J. T. Milik insists that the "Son of God" refers to a Seleucid king, referring Antiochus IV Epiphanes. Florentino Garcia Martinez suggests that it is an angelic savior like Michael, Melchizedek, and the Prince of Light. And other scholars view the figure as a messianic redeemer who will cast God's enemies away and build the kingdom of God's people (Cross, Collins, Hengel, Kuhn). Exceptionally, David Flusser insists that he is the Antichrist, and Martin Hengel insists that he is the Jewish people collectively. E. Puech believes that the Son of the Most High could be either the future Davidic Messiah or a historical Seleucid

pretender. Joseph A. Fitzmyer argues that what the Son of God refers is not a messiah, but a coming Jewish ruler, perhaps a member of the Hasmonean dynasty. According to the scholars, therefore, the title "Son of God" would be either a historical character, a heavenly figure or a messianic human being. But, most importantly,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y in fact have not seen the text itself: for example its structure, feature, theme than the vague figure in scroll. With literary criticism and historical view, we have to review the text of this scroll. Through its methodology, we can find the structure, feature, terminology similar to the book of Daniel, especially Ch. 7. Martin Hengel suggests that the figure is similar to "the one like a Son of Man" in Daniel 7: 13-14. Furthermore two texts that have same apocalyptic structure and feature seem to say that the author of 4Q246 was influenced by Daniel 7. The two texts reveal such an extensive degree of verbal, thematic, and structural correspondence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4Q246 is the Apocryphon of Daniel, but the debate about the identity of son of God in 4Q246 is still valid. And Qumran community wants to read their hope, coming redeemer saving the people, the qumran theology, habits, and beliefs in this scroll.

Keywords

4Q246
Qumran Theology
Son of Man
Son of God
Daniel